

Jerusalem

이스라엘-예루살렘(II)

자료제공 : 이운익(마태오) 세익여행사 대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언덕에 위치해 있는 인구 약 3만 명 정도의 아랍인 마을이다. 베들레헴은 예수가 탄생함으로써 영원한 도시가 되었다(관련 성서 : 1사무 16,1-13; 미가 5,1; 마태 2,1-18; 루가 2,1-20).

예수 탄생 성전

로마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는 324년 베들레헴으로 성지 순례를 와서 예수 탄생지로 전해 오는 동굴을 참배한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부탁하여 동굴 위에 성당을 짓게 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장식한 모자이크 일부가 성당 중앙 중간 지점



베들레헴 전경

나무 상자 밑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이 성전은 화재와 지진으로 여러 번 파괴되었다. 지금의 성전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531년에 완공한 성전으로 지붕과 바닥, 내부 장식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원형 그대로이다.

벧파게

벧파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의 집’ 또는 ‘무화과 나무의 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복음사가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벧파게에서 새끼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한다.

벧파게의 현재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올리브산에서 멀지 않은 아랍인 마을 근처 어느 지역으로 보고 있다. 벧파게 기념 성전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 1883년에 세워졌다(관련성서 : 마르 11,1-11; 마태 21,1-11; 루가 19,28-40; 요한 12,12-19).

베다니아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향하는 길목의 아랍인 마을에 위치해 있다. 베다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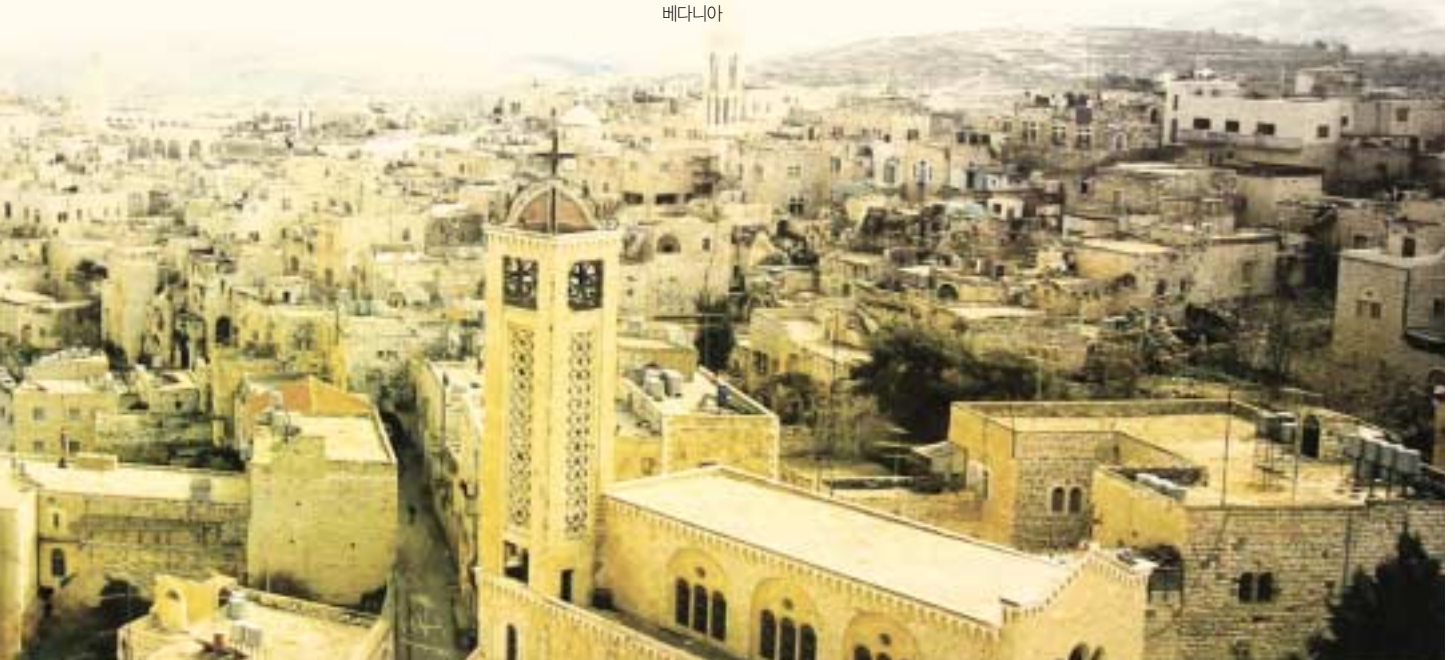
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아랍인들에게는 ‘엘 아자리에’라고 불리고 있으며, 예수님과 절친했던 마리아와 마르타, 라자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에 자주 방문한 곳이라고 한다. 라자로의 무덤과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1953년 베다니아 기념 성전을 세웠다(관련성서 : 요한 11,1; 루가 10,38-42; 요한 11,1-44; 12,17).

헤브론(Hebron)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킬로미터 떨어진 아랍인 도시에 위치해 있다. 헤브론은 팔레



베다니아



스티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이곳 헤브론에 와서 막벨라 동굴을 가족묘로 샀으며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족장 부부가 묻혔다.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은 이러한 이유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다음가는 성지이고, 기원전 100년경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쟁취할 때 발판으로 삼았던 도읍이기도 하다. 회교도들은 아브라함과 그 이들을 예언자로서 추앙하고 있어 회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아브라함 사원 (The Mosque of Abraham)

헤로데 시대의 돌담과 돌바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헤로데의 무수한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사원이다.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으로 지어졌으며 4세기에는 비잔틴 교회로, 십자군 시대에는 기독교 교회로, 다시 사라딘 시대에는 회교 사원으로 이용되었다. 아브라함 사원을 회교도들은 ‘하람 엘 칼릴(Haram El Khalil)’이라 부르는데, 이는 ‘하느님 친구의 전당’이란 뜻이다(관련 성서 : 창세 25,7-10; 35,27-29; 49,29-32; 50,12-13).

마므레(Mamre)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4킬로미터 위치에 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참나무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제단을 설치했다는 곳이며, 아브라함이 신비스런 길손을 만나 사라가 1년 안에 이사악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곳이다. 또한 길손들이 소돔을 멸하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하려고 흥정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자그마한 유적만 남아 있다(관련 성서 : 창세 18,1-15; 13,18).



아브라함 사원



마사다암반 요새

소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육지로 해저 395미터에 위치해 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이고, 죄의 도시로 유황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곳이다(관련성서 : 창세 13,1-13; 창세 9).

마사다(Masada)

사해 수면보다 약 40미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성벽은 아래에서 100미터까지는 깎아 놓은 듯이 절벽이 이뤄져 있어 자연적인 요새이다. 마사다는 하스몬가의 통치자에 의해 건축되었고(142-63), 기원전 35년에 헤로데왕에 의해 개축되어 기원 후 66년까지 그 후손들이 관리했으나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점령되자 이스라엘인들은 이 요새를 거점으로 항쟁하다 73년에 960명이 로마군에 항복하지 않고

자살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이곳을 민족적 항쟁 표본으로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다.

예리고(Jerico)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9킬로미터 내려가 오아시스의 도시에 위치해 있다. 예리고는 해면보다 250m 낮은 지역으로 세계에서 제일 낮은 도시이다. 도시 중심부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술탄 샘이 있다. 일명 예언자 엘리아 샘이라 한다.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푸른 초원이 생겨났다. 예리고는 예수님이 예리고를 떠나시면서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과, 자캐오라는 세관장 집에서 하루 머무신 두 이야기가 있다. 자캐오는 키가 작아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구경했다고 한다. 예리고에는 유적으로 헤로데의 궁전터와 그 시가지의 유적이 있다(관련 성서 : 마르 10,46-52; 루가 19,1-10).

예리고의 옛도시

고고학적으로 예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로 1952-1958년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 캐더린 캐년(Kathleen Kenyon)에 의해 정밀 발굴 되었다. 발굴 결과 신석기 시대의 성벽과 둥근 망대를 발굴하였다. 기원전 8만 년경에 이미 성을 쌓고 도시 생활을 시작한 유물이다. 이러한 유적은 예리고 언덕(술탄 언덕)에서 볼 수 있다.

유혹의 산

예리고의 동쪽 뒷편에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는 12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혹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절벽 중간에 1842년에 세워진 희랍 정교회 수도원이 현재 남아 있다.

쿰란(Qumran)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쿰란은 사해 사본을 기록한 에세느파 사람들의 주거 지역이다. 에세느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4색(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열혈당파, 에세느파) 당파 중 세 번째 종교학과 내지 철학파라 한다. 1951-1956년 예루살렘 성서 연구소 합동 발굴단이 쿰란 지역을 다섯 차례나 발굴하여 에세느파들의 수도원 본부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1947-1956년에 아랍 유목민들과 고고학자들이 쿰란 폐허 근방에 있는 동굴에서 수도지들이 남긴 문헌들을 많이 발견하였다. 이 중에서 4번 동굴에서 사해 필사본을 발견하였다. 쿰란 폐허에서 그 당시의 토기, 물 저장 탱크 등 여러 유적들을 볼 수 있다.

엔게디

엔게디는 사해의 중간 부분에 서쪽 언덕의 유다 광야 중 오아시스에 속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살았던 곳으로 엔게디 폭포 위쪽에는 기원전 3,000년 이전의 동석기 시대의 신전과 제단이 남아 있고, 약 500미터 남쪽에는 비잔



유혹의 산



사해

틴 시대의 건물 유적을 볼 수 있다(관련 성서 : 사무 24,1-23).

사해

예루살렘에서 약 40킬로미터 위치에 있으며, 사해 수면은 해저 396미터이고, 수심은 약 399미터까지 내려간다. 길이는 약 78킬로미터, 넓이는 18킬로미터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 내려오며 다른 곳으로 내려가는 곳은 없다. 사해는 바닷물보다 7배나 짜며 농도가 높아서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고 뜬다. 피부병,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요르단 강

요르단 강은 대략 260킬로미터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헤르몬 산(최고봉 2,814미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르단 강으로 모여 흘러 내려간다. 요르단 강을 이스라엘은 '하 아르덴', 아랍 사람들은 '엘 우르단' 이라고 부른다. 요르단 강에는 세 개의 호수가 있다. 상류에 위치한 호수는 다 흘러내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간 농토로 만들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킬로미터, 폭이 13킬로미터의 방대한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불려오고 있다. 갈릴리 호수 수면은 해저 215미터이다. 또 하나는 사해이다.



요르단 강



다불산

다불산

이즈르엘 평야의 북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588미터이고, 평지보다 450미터 높다. 이 산은 '히르타불(높은 산)' 혹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산'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념 성당과 희랍 정교회의 엘리야 성전이 있다. 예수의 변모 사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의 수단이었다. 다불 산은 하느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성지 중의 성지이다(관련 성서 : 마태 17,1-8; 마르 9,2-8; 루카 9,28-36.).

엠마오

엠마오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약 3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현재 엠마오의 기념 성당이 있으며, 이곳은 2-3세기경에 예수 부활 신앙을 따르고 기념하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



요셉의 묘

엠마오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심어준 곳이라 말할 수 있다(관련 성서 : 마르 16,12-13; 루가 24,13-35.).

나블루스-세겜

인구 5만 명인 아랍 사람들의 팔레스티나 민족주의 중심 도시이다. 나블루스는 성서에서 언급되는 세겜을 기점으로 하여 세워진 신흥도시이다. 세겜과 나블루스는 그리짐 산과 에발 산이 이루는 계곡에 위치해 있다. 나블루스와 세겜의 거리는 2킬로미터이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고대 대상 통로의 요지로 오래전부터 유목민의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이곳에서 천막과 제단을 세우기도 했다.

야곱의 우물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요 성지이다. 예수께서 이곳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위시하여 시카르 마을 주민들이 예수께 신앙을 고백한 곳이다(관련 성서 : 요한 4,1-42).

요셉의 묘

야곱은 은 백냥을 주고 세겜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자기 유골을 그곳으로 이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요셉의 유골을 이집트에서 세겜으로 모셔가 매장한 곳이다. 현재는 이스라엘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관련성서 : 출애 13,19; 여호 24,32; 사도 7,15-16).

텔 발라타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여러 가지 귀중품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하는 그 장소이다. 1913년 처음으로 발굴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나안-이스라엘 시대의 성문, 바알 신전 등이 발굴되었다.

그리짐 산

나블루스-세겜의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약 880미터이다. 맞은 편에는 약 9,409미터의 에발 산이 있다. 모세는 그리짐 산을 축복의 산, 에발 산을 저주의 산이라 불렀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짐 산 위에 성전을 세워 전통적인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 하였으며,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터를 찾아냈다. 이곳에서 현재 사마리아인들은 과일절 행사를 갖는다. 🐦